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 / F.286-9206)
http://www.jthink.kr

보도시점: 2020년 4월 11일(월)부터

▪ **문 의** :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063-280-7111)
▪ **담 당** : 산업경제연구부 나정호 부연구위원 (063-280-717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군산항 발전의 기회로 활용

전북연구원,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응한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제시
지역 수출입 화물 공략, 협동조합 방식 지원, 신규항로개설 등 제안

[사진 및 영상자료 : 없음]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군산항 대응전략’(통권 220호)을 발간하고, 2020년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따른 군산항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화물에 우선 적용된다.

○ 부산항, 광양항 등 대형 항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전라북도 지역 수출·입 화물은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지역 유일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 이용에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전라북도와 교역이 많은 국가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인데 다행히 군산항에 해당 지역간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타 항만을 이용하던 전라북도 지역 화물을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전라북도 수출·입 기종점 데이터 분석 결과 군산항 개설항로가 있지만 부산항,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물이 약 5만 TEU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박사(산업경제연구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도입은 ‘타 항만을 이용하는 지역 수출·입 화물 유치’, ‘지역 화물의 군산항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군산항 물동량 증대에 따른 신규 항로 개설 가능성’ 등 기회와 함께 ‘물류비 상승’, ‘타 항만의 전북 화물 유지 경쟁’, ‘군산항 항로 미개설 지역의 경우 도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위협이 공존하고 있다.”며 군산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의 군산항 유치를 위하여 ‘군산항 유치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을 적극 공략’, ‘화물자동차 운송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방식의 지원’, ‘장기적으로 군산항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동남아 지역 등 신규 항로 개설 추진’ 등 추진을 제안하였다.

○ 한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간·휴일 수송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업계 현실이 미반영된 한계가 있어 향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와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당부하였다.